

화순군, '빈틈없는 장애인 돌봄' 위해 선제적 전수조사

2026년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대비...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기반 마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대비해 장애인의 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 우선대상자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대상자의 욕구를 사전에 파악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의료적 돌봄 필요도가 높은 우선 대상자 198명 집중 조사

조사 대상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65세 미만의 의료적 돌봄 필요도가 높은 지체·뇌병변 등 중증 장애인 198명(2026년 1월 기준)이며, 조사 기간은 2026년 1월 21일부터 2월 27일까지 약 5주간이다.

조사는 화순군정 통합돌봄과 자립돌봄팀, 각 읍·면 복지팀이 협력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의료 및 돌봄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조사를 병행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 조사 결과 바탕으로 '고위험군' 맞춤형 통합 서비스 연계

군은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3월 중 종합관정기관인 국민연금공단(노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후 군, 읍·면, 보건소, 국민연금공단, 돌봄기관 등으로 구성된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서비스는 단순 돌봄을 넘어 의료·주거·요양 등 일상생활 전반을 포괄하며,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군민이 체감하는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할 것"

양보남 통합돌봄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본 사업 시행에 앞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대상 가구 방문 시 사업 안내와 조사표 작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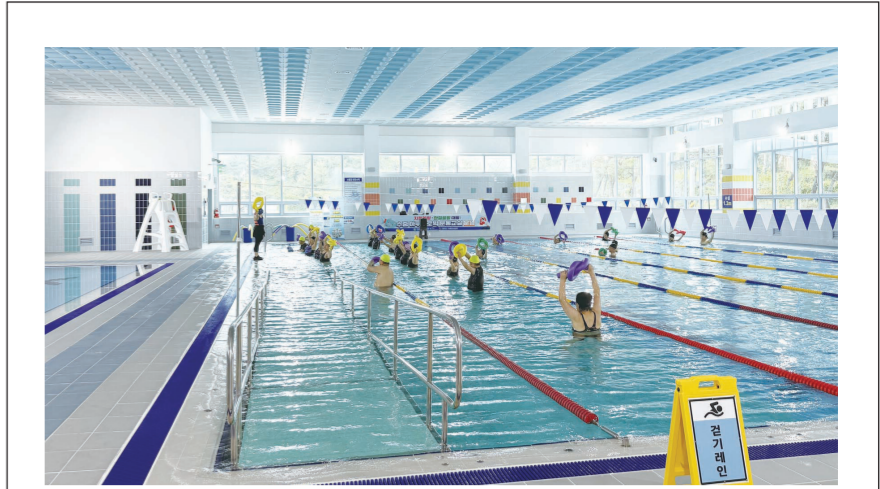
과 퇴원 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의료·돌봄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화순/김충환 기자



과 퇴원 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의료·돌봄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화순/김충환 기자



함평실내수영장, 개장 첫해 이용객 6만 7천명 돌파 쾌적한 환경·맞춤형 강습 프로그램 만족도 높아

전남 함평군에 지난해 개장한 함평실내수영장이 개장 첫해 이용객 6만 7천명을 돌파하며 군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해 개장한 함평실내수영장 운영 결과 총 6만 7568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영 강습 프로그램과 자유 수영을 병행하여 군민 전 연령이 고르게 이용하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되었다"고 14일 밝혔다.

함평실내수영장은 ▲학생 수영 교육 ▲지역 수영 동호회 활동 ▲노년층 건강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활용되어 공공 체육시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성인·노년층 맞춤형으로 운영된 수영 강습 프로그램은 기초 수영 능력 향상과 재활·건강 관리 측면에서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이용객은 "마땅히 체육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겨울에도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다"며 "계절과 관계 없이 꾸준히 운동할 수 있어 시설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함평실내수영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군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수영을 즐기실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2026년에도 군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편과 단계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편의성을 높이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체육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함평/전광훈 기자

완도군은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광택시'를 운영한다.

'완도 관광 택시'는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관광객이 관광지를 편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택시 기사와 함께 이동하며 문화·관광 정보 등을 안내해주는 사업이다.

택시는 체도(육지)권의 경우 완도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도서 지역은 청산면에서 이용 가능하다.

관광 택시 운행 요금은 체도(육지)권의

완도군, 반값 관광 택시 타고 힐링 투어하세요!

은행 요금 기본 2시간에 5만 원, 이용일 2일 전 예약 필수

경우 2시간에 5만 원, 3시간은 7만 원, 5시간은 10만 원이며, 청산면은 1시간에 5만 원, 2시간에 7만 원으로 택시 요금의 50%는 완도군이 지원한다.

관광 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관광객은 이용 2일 전까지 완도 관광택시(☎061-555-8582)로 연락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완도/강선우 기자

이용구분	주요내용																								
예약방법	전화 접수(완도 관광택시 ☎ 061-555-8582)																								
이용방법	① 사전 예약(이용일 최소 2일 전) → ② 기사 배정(사전 연락) → ③ 완도 도착(택시) → ④ 택시 이용 및 결제																								
운영지역	체도(완도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지역 관광 명소 상용																								
요금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완도읍</th> <th>군외면</th> <th>신지면</th> <th>고금면</th> <th>약산면</th> </tr> <tr> <td>2시간</td> <td>5만 원</td> <td>5만 원</td> <td>5만 원</td> <td>5만 원</td> <td>5만 원</td> </tr> <tr> <td>3시간</td> <td>7만 원</td> <td>7만 원</td> <td>7만 원</td> <td>7만 원</td> <td>7만 원</td> </tr> <tr> <td>5시간</td> <td>10만 원</td> <td>10만 원</td> <td>10만 원</td> <td>10만 원</td> <td>10만 원</td> </tr> </table>	구분	완도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2시간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3시간	7만 원	7만 원	7만 원	7만 원	7만 원	5시간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구분	완도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2시간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3시간	7만 원	7만 원	7만 원	7만 원	7만 원																				
5시간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도서 지역(청산면)	6인 이상 탑승 시 1인당 1만 원 추가 비용 발생																								
요금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완도읍</th> <th>군외면</th> <th>신지면</th> <th>고금면</th> <th>약산면</th> </tr> <tr> <td>2시간</td> <td>5만 원</td> <td>5만 원</td> <td>5만 원</td> <td>5만 원</td> <td>5만 원</td> </tr> <tr> <td>3시간</td> <td>7만 원</td> <td>7만 원</td> <td>7만 원</td> <td>7만 원</td> <td>7만 원</td> </tr> <tr> <td>5시간</td> <td>10만 원</td> <td>10만 원</td> <td>10만 원</td> <td>10만 원</td> <td>10만 원</td> </tr> </table>	구분	완도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2시간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3시간	7만 원	7만 원	7만 원	7만 원	7만 원	5시간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구분	완도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2시간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3시간	7만 원	7만 원	7만 원	7만 원	7만 원																				
5시간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시행되며,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음식점 이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

담양군, 반려동물과 함께 '남도음식' 즐겨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부터 제도 시행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주요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은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울타리 등 설치, ▲영업장 출입구에 표시판 또는 안내문 게시, ▲음식점 내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이동 제한, ▲동물 전용 의자·케이지·목줄걸이 고정 장치 구비, ▲다른 손님 또는 반려동물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객용 식탁 및 통로 간격 확보, ▲반려동물 털 등 이물질 흡입 방지를 위한 푸경·덮개 설치, ▲반려동물용 식기 등 용품은 손님용과 분리 보관·사용,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구비,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미접종

시 출입 제한 표시 등이다.

담양군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내 대상 업종 음식점 1,019개소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문자 안내를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기준 영업자 중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을 갖춘 후 사전검토 신청서 등을 담양군청 관광과(hjseo321@korea.kr, 팩스 061-380-3557)로 제출하면 된다.

담양/이종욱 기자

영암군이 13일 전체 승용차 2만1,160대 소유자에게 57억 규모의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다음달 2일까지 연납으로 5% 가까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승용차 소유 영암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절세 혜택을 누리도록 연납을 강조하고 나선 것.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4.57% 세액공제 받으세요

내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받아... 절세 혜택 누릴 찬스

부과되는데,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고지서는 납세자가 먼저 신청하는 과세 당국이 발행하는 '신청주'가 원칙이지만, 영암군은 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영암군민이 없도록 모든 승용차 소유자에게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아울러 1월 연납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고, 6월 정기분에 다시 부과되고 알려졌다.

연납 자동차세는 신고분이어서 자동차

제가 되지 않고,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뱅킹, 자동납입시스템(ARS), 온라인 위택스(WETAX)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영암/김희선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무안군, 2025년 말 인구 95,592명 기록

전년 대비 2,905명 증가... 군 단위 인구증가를 상위권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5년 12월 말 기준 인구가 95,59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905명(3.14%)이 증가한 수치며 해당 수치는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인구증가를 8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군 중에서는 3위를 기록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는 인구증가를 15위 수준이다.

현재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군은 전국 10곳으로, 무안군은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군은 이를 정책·산업·정주 여건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무안은 출산 이후 양육, 교육, 정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0세부터 18세까지 아이 1명당 약 1억 2천만 원 수준의 각·간접 지원 체계를 운영하며, 출산과 양육 부담을 지역사회가 함께 분담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인구는 일자리에 시작된다'는 인식 아래 RE100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중장기 인구정책의 한 축으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K-푸드 융복합산업단과 AI 기반 첨단 농업 거점 조성 등을 통해 농업 분야의 산업 전환도 추진 중이며, 공항·KTX·고속도로·국가산업단지를 연계한 교통·산업 기반을 토대로, 공항 배후 자족형 도시 조성 등 무안을 중심부 도시 구조 재편 등을 통해 정주 여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김산 군수는 "무안군의 인구 증가 흐름은 단계적 유입이 아닌, 산업·복지·도시 정책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을 차분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군 제공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